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8호 [루계 제25026호] 주제 104 (2015)년 9월 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선군 청년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
청년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제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발달로 부강조국의 자랑스러운 기념비
가 일떠서는 백두산구에 삶의 뜻한 자욱
을 새겨가고 있는 청년발전소 건설을 적극
임하고 청년발전소 건설을 적극 고무
하였다.

조선국제체육도련행사 안내통역원 리은
경은 선군청년의 영웅적 기상과 용맹이 나
래치는 백두산선군에 적은 힘이나마 바칠
것을 험난한 청년발전소 건설을 적극 고무
하였다.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헌
신하여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실장 리윤철
은 청년들의 발걸음을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는 당시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남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
는 건설자들을 통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옹진평원 차량수 청년들 대장 리금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당시
의 청년들이 준비한 한마음으로 안주시
인민위원회 산하단위로 토동자 강경평은 건
설장에 찾아온 일도 함께 하고 후방군
대원들의 전투적 사기를 북돋워주었다.
영광의 10월에 백두의 불아경을 기어이
펼쳐놓는데 기여한 일념으로 건설전공업
부원들이 탁영남, 김명선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지원사업에서도 노력을
보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
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김정일에 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보탬이 되는 일을 더
많이 찾아함으로써 당시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당시
의 청년들이 준비한 한마음으로 안주시
인민위원회 산하단위로 토동자 강경평은 건
설장에 찾아온 일도 함께 하고 후방군
대원들의 전투적 사기를 북돋워주었다.
영광의 10월에 백두의 불아경을 기어이
펼쳐놓는데 기여한 일념으로 건설전공업
부원들이 탁영남, 김명선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지원사업에서도 노력을
보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
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김정일에 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보탬이 되는 일을 더
많이 찾아함으로써 당시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동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시에 축하를 드리게 됨
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며 원성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훌륭한 기회에 수리아아랍공화국이 귀국파의 친선협조관계를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인합니다.

원수동지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알아сад

2015년 9월 3일

디마스끄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자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사랑찬 과학기술성과를 마련해간다

국가과학원에

</div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 차넘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오늘 우리의 주체 교육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중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해 나가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자기 밟았던 새로운 번영의 풍경을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께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대제』를 발표하신 뒤 깊은 날과 더불어 열마나 기습드거운 화폭들이 이 땅에 펼쳐졌던가.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해 전 9월 5일부로 당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식과 실리있던 사실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때 이 공시를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최고인민회의 제 1 2 기 제 5 차 회의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결정이 누구나 기습드거운 충격을 주고 있는데 또다시 진행될 최고인민회의 제 1 2 기 제 6 차 회의 소식이 있던 것이다.

이제 열리게 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중대한 의정이 토의되겠는가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집중되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으니 9월 25일 경에 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 2 기 제 6 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날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전반적 1 2 차 회의의 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와 토론에 이어 전반적 1 2 차 회의의 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베푸려온 청년전선부대를 가진 것이다.

온 나라가 끊어버렸다. 전반적 1 2 차 회의의 무교육의 실시, 바로 여기에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자랑하시는 우리 공화국을 하루빨리 교육강국,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반드시 떠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인과 함께 끊어버렸다.

불멸의 교육대강이 발표되면 역사의 남과 더불어 끊어져날 수 많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이야기들을 끄기 운동에 더욱 뜨겁게 불을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을 민족의 흥망성쇠, 조국의 장래운명과 판관되는 중대사로 여기고자 지시인데부대를 키우시여 강성국가

건설의 들통한 밀천을 마련하신 경제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리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종합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미고나갈 세계적준준의 재능있는 학교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기획해야 합니다.』

교육은 혁명의 승리와 민족의 장애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해방전 변변한 대학 하나 없었던 우리나라가 오늘은 조국땅 이르는 끈마다 대학들을 수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국가로, 누구나 마음껏 배우는 배움의 나라로 되었다.

문맹자가 인구의 절대수차를 차지하고 몇 사람의 지식인밖에 없던 나라로부터 수백만 저지연대부대를 가진 교육의 나라로 되었다.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그 뜻깊은 부름속에 암흑을 박차고 광명으로 출발당처은 우리 조국의 빛나는 역사가 안겨온다.

독창적인 사회주의 교육사상론을 넓히면서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 교육의 본보기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에, 우리 수령님의 교육중시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여 최첨단과학기술의 위력을 조국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운다.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따라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빛을 뿐려온 우리 조국은 오늘 더욱 창창한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

온 나라의 피눈물의 대하가 흐르니 1 2 월의 그 나날 우리 당은 교육사업을 매우 중시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면서 교육사업을 확고히 주체워나라는 여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이 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늘같은 밀음파 사랑을 부여주시며 온 나라에 교육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크나큰 실현을 비치신것 아니면가.

경상유치원의 어린이들을 사랑의 한풀에 알아주실 때에도, 평범한 로동자정의 아이들을 만나 앞날의 고생 꿈을 키워주실 때에도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에서 세세세들을 주제 혔의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옹대한 구상이 뚜렷이 어가고 있는 그때는 누구도 놀랐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세세들을 주제 혔의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옹대한 구상이 뚜렷이 어가고 있는 그때는 누구도 놀랐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얹민원에도 비껴줄 수 없는 귀중원 보배, 회당파 미래의 전부로 내세우시고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여 성장소성을 메고 나고나를 학생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신 분도,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연舫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잘 꾸려도록 하신분도, 부모임은 원아들을 찾고 또 찾으시여 친부모도 줄수 없는 많은 사랑과 절을 기울이시며 온 나라에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원원을 펼쳐 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킬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고 새 학년도를 맞으며 평양시의 교육부문 단위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세우기자재들을 보내주시는 것과 같은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등 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해 나가고자 하는 교육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인정해 주신 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나라의 발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재정비하며 교육부문에서 오래동안 굳어져내려온 주입식, 암기식교육방법과 도식적인 체계를 깨우치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할 때에 대한 청탁에 주인공들이 축하의 뜻과 함께 속에 묻혀 교문으로

세를 파악적으로 통찰하시고 전반적 1 2 차 회의의 무교육을 실시하는 중대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여 우리 당의 혁명적교육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 시켜나갈수 있게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의 손길은 얼마나 혼례로운것인가.

전반적 1 2 차 회의의 무교육의 실시가 우리 인민에게 그리도 큰 충격을 주고 모두의 가슴마디를 뜨겁게 하여주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띡사는 영원히 이 땅에 끌어들이려는 확신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반적 1 2 차 회의의 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의 제례은 평생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파민족의 장애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 교육사상의 빛나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묵히 헌신한 날짜 달들은 또 열미였던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얹민원에도 비껴줄 수 없는 귀중원 보배, 회당파 미래의 전부로 내세우시고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여 성장소성을 메고 나고나를 학생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신 분도,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연舫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잘 꾸려도록 하신분도, 부모임은 원아들을 찾고 또 찾으시여 친부모도 줄수 없는 많은 사랑과 절을 기울이시며 온 나라에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원원을 펼쳐 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킬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고 새 학년도를 맞으며 평양시의 교육부문 단위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세우기자재들을 보내주시는 것과 같은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등 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해 나가고자 하는 교육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인정해 주신 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나라의 발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재정비하며 교육부문에서 오래동안 굳어져내려온 주입식, 암기식교육방법과 도식적인 체계를 깨우치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할 때에 대한 청탁에 주인공들이 축하의 뜻과 함께 속에 묻혀 교문으로

들어서는 화폭들이 결제지게 되었다.

어찌 그뿐이랴.

전반적 1 2 차 회의의 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동일반교육발전에서 참된 교육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당부를 참가자들만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교육자들이 심장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에 대한 뜻과 함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에 대한 뜻과 함께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에 대한 뜻과 함께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에 대한 뜻과 함께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에 대한 뜻과 함께 있다.

영예롭고 보람찬 초소에 섰다는 높은 자각과 숭고한 후대판을 지니고 세심히 가르쳐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읊성이 들려오고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면서 아영생들이 통식물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수족관과 조류사, 동물박제품전렬실을 특별하게 건설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면 우리 원수님의 대심하신 사랑이 세한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차넘치는 내 나라, 내 조국, 위대한 수령님들의 병역의 교육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 머지않아 우리 조국은 교육강국,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세계에 친연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위대한 사랑의 시책을 해빛처럼 받아들이고 지역체의 역할 나래 더 활짝 펼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미래는 앞으로도 영원히 밝고 창창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금 분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밀음직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청년대학생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4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양형길동지와 꽃바구니를 전정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다.

그들은 만년반미투쟁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고 사회주의 위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으며 조선과 꾸바공화국 사이의 친선과 우호를 키우고자 꽃바구니를 전정하고 있다.

조선선전통신은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양형길동지와 꽃바구니를 전정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쓰 마리노공화국 집정관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쓰 마리노

쓰 마리노공화국 집정관

안드레아 벨루찌 각하 로베르도 벤두리니 각하

나는 쓰 마리노공화국 국경절에 즐움하여 당신들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귀국인민에게 전보와 번역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104(2015)년 9월 3일

박봉주총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와 조선속도장 조성부문에서 현대적으로 일어서고 있는 과학기술전당 건설 정형을 현지에서 조성하고 있다.

총리는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당의 혁명방식, 투쟁기록, 창조분야에 세인을 놓고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

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정성과를 고무해 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답게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원칙에서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강하고 현장단위들에 서 건설자재를 원활히 보장해 주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총리는 이에 앞서 금성프리포트공장과 평양에 기공장을 돌아보았다.

총리는 능동경계화를 실현하는데서 금성프리포트공장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미적수를 높이고 성능이 좋은 레일로드를 생산하는 데에 대한 대책들이 세기되는 문제를 험의 하였으며 평양에 기공장을 훌륭히 개건하여 우리 당의 인민당을 길이 전해나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총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지료해

총리는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당의 혁명방식, 투쟁기록, 창조분야에 세인을 놓고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

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정성과를 고무해 주었다.

조선은 불패의 강국

공화국 창건 67돐에 즐움하여

여러나라에 진행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불패의 강국

공화국 창건 67돐 경축 행사

여러나라에 진행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불패의 강국

공화국 창건 67돐에 즐움하여

여러나라에 진행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불패의 강국

공화국 창건 67돐에 즐움하여

여러나라에 진행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불패의 강국

《최고수준의 황홀한 공연,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

공훈국가합창단 하바롭스크에서 초대 공연 성황리에 진행

로씨야를 방문하고 있는 공훈국가합창단이 수도 모스크바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3일 원동면구 하바롭스크에 소재지인 하바롭스크시에서 성황리에 초대 공연을 하였다.

공연장소인 하바롭스크번 강을 악곡장으로 조선의 예술사적인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왔다.

워포르 마르센고 하바롭스크번 강정부 부수장, 나탈리야 아우찌나 하바롭스크번 강정부 문화상, 알라 꼬즈네 조비 번 강정부 교육성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하바롭스크번 강정부와 의회, 하바롭스크 시행정부,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로씨야현방무부 동부 군판구 군인들, 시민들, 재로씨아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임천일 나흐드까주제 우리 나라 총평사와 총평사관 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관중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님들을 자기들의 도시에 여려 차례나 모시었던 영광의 나날들을 길은 감회 속에 둘이켜보며 조선의 관록있는 예술단체인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된 기쁨에 넘쳐 있었다.

워포르 마르센고 하바롭스크번 강정부 부수장은 조선인민군 군악단이 두차례에 걸쳐 국제 군악축전에 참가하여 이름을 날린 이곳 번장에서 조선의 가장 명성높은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합창단의 하바롭스크방문을 열렬히 축

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 국가가 장중하게 울려 퍼져졌다.

첫 폭목으로 무대에 오른 원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강성 국가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리상향, 사회주의 문

명국으로 나날이 개화발전하는 주체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담

고 있는 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

명을 주었다.

무대에는 원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기』, 남성합창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너성독창과 남성합창 『절명아래 사

파비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로씨야노래 『남성 중창 『앞으로』, 남성 중창과

경음악 『근위부대 자랑가』, 로씨야노래 『행

사를 사내대장부들이여』, 남성 독창과 무반

주합창 『천호속의 나의 노래』, 로씨야노래

『넓은 대지 씨비리』, 원전악과 노래연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너성 2중창과

남성방창 『샘물에서』 등 선군조선의 혁

명적기상과 전투적령만, 로씨야인민의 민족

적정서가 넘치는 곡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청룡같이 끌어 차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

주의 길을 끊어버리며 백두산총

대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

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 조로친선관계를 더

욱 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지

향과 넘원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

하늘땅을 울리는 것과도 같은 풍만한 성

량과 특색 있는 편곡, 생신한 성악적형상으

로 장엄하면서도 경쾌한 정서를 안겨주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늘 때마다 판중들은

경련을 금지 못해하였다.

특히 원전악 『세계명곡묶음』을 감상한 관

람자들은 원전악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연주가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출연자들은 『정의의 싸움』, 『오직 승리

하나일뿐』, 『불가의 배노래』 등 로씨야인민

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들도 원전악

과 노래연곡, 남성 합창으로 훌륭히 형상하

였다.

로씨야노래 『승리의 날』이 원전악으로 장

중하게 연주되자 관람자들은 출연자들과 마

음을 맞추어 노래도 함께 불렀으며 거듭 재

청을 요구하였다.

오늘 이처럼 황홀한 공연을 보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쁘다.

이번 공연이 문화 및 예술분야에서 조선

과 로씨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을 힘

게 추동하는 이루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나탈리야 아우찌나 하바롭스크번 강정부

노래들이 지난 공훈국가합창단이 연주하니

야말로 최고의 수준으로 형상되었다.

합창단의 모든 예술적형상이 최상의

경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지휘자들로부터 연주가, 배우들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기량이 최고의 수준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남성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열忱과

같은 존경과 흡모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험축된 창으로 훌륭한 노래이다.

노래 자체가 기백이 있고 형상도 정신이

번쩍 들게 힘이 있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하바롭스크의

각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워포르 마르센고 하바롭스크번 강정부 부

수상은 오늘의 공연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

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연에서 들은 노래들은 이미 귀에 익은

노래들이지만 공훈국가합창단이 연주하니

야말로 최고의 수준으로 형상되었다.

관람석에서는 조선의 훌륭한 음악가들에

게 보내는 박수갈채가 끊길 줄 몰랐다.

그들의 형상수준과 규율, 애국주의는 놀

라움을 자아냈다.

참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예술단체이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본보기로 된다.

그처럼 수준있고 재능있는 조선의 예술

인들의 공연이 우리 국장에서 진행된다 대

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린다.

어느 노래라고 짜지 못 할 정도로 로씨야

노래를 비롯하여 모든 노래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은 최고의 최고이며 그들

의 예술활동에서 우리가 배울것이 참으로 많다.

이것은 관람자들 모두의 공통된 심정이다.

조선의 가장 명성높은 예술단체인 공훈

국가합창단에 경의를 표한다.

하바롭스크시 고려인민합회 회장 백구성

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펴하였다.

국장에 이처럼 관중들이 가득차기는 처

음인 것 같다.

로씨아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에서

온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저

저마다 모여왔다.

이들의 마음이 왜 이렇듯 끌렸겠는가를

오늘의 공연이 잘 즐겨주었다.

공연에서 제일 마음에 든 것은 애국주의 노래들이었다.

우리 동포들에게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

준 공훈국가합창단이 정말 고맙다.

오늘과 같은 훌륭한 공연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들만이 아닌 수많은 관중들도 조선의

공훈국가합창단이 지닌 특출한 예술적감화

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아낌없는 찬사

를 보냈다.

조국전쟁 승리 70돐이 되는 해에 모스크바

와 원동땅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과 마

음을 하나로 이어주며 성황리에 진행된 공

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전통적인 조조원선

의 연대기에 또 하나의 뜻깊은 장을 아로새

기는 훌륭한 계기로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
모스크바의 여러 곳 참관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이 크레믈리성 벽에 있는 무명전사묘를 보았다.

조국전쟁 70돐과 로씨야에 서의 위대한 조국전쟁 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조조원선의 해에 조용하여 로씨야를 방문한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이 모스크바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은 위대한 조국전쟁 중박물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지난 쏘도전쟁 시기 제2차 세계대전의 기본증상을 걸어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피흘려 싸워 쟁취한 랙자들을 격려한 붉은 군대 병사들과 인민의 위훈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모스크바전쟁전관, 구르스크전쟁전관, 베를린 함락관 등 박물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또한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은 붉은 왕궁에 있는 레닌묘를 방문하였으며 크레믈리성 벽에 있는 무명전사묘를 보았다.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바레인팀 사이의 1차경기 진행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바레인팀 사이의 1차경기가 3일 바레인에서 진행되었다.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활아버지 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활아버지 이신 리보이너사의 묘, 아버님 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 이신 강반서녀사의 묘에 꽃다발을 전 정하고 묵상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역사와 일가분들의 국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대원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을 방문하고 충현의 세대들을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바라

시대로 훌륭히 키워야 하겠다는 자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

다고 말하였다.

교육테제의 빛발아래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간다

주체교육의 만년도대를 마련해준 불멸의 대강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강령적지침으로 확고히 둘어쥐고 그것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교육사업에 끝바로 구현해나가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한 교육정책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38돐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는 온 나라 인민들은 교육자들은 동창적인 사회주의교육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몇나개 구현하시여 교육사업으로 주제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의 본보기로 제시해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학습에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

그와 더불어 수십년전에 벌써 인류교육발전의 미래를 향한 밝혀주신 우리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더욱 기豕뜨겁게 돌아보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지 않으시는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지 않으면서 교육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없다.

발전하는 시대와 함께 나라들 사이에 더욱더 치열해지는 교육경쟁의 열풍속에서 새 세기의 교육은 나날이 변모되고 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혁신, 교육의 관리와 체계의 개편, 교육의 정보화와 과학화, 현대화,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의 개선

등 그 범위는 실로 다양하고 방대하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교육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세계를 보며 우리는 절세위인들께서 밝혀주신 주제적인 교육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가슴깊이 절감하게 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교육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에 퍼트려주었다. 창조적인 응용을 기본으로 하는 능력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수십년전에 제시된 우리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하기에 10여년전 정양에서 열린 『전민교육민족행동계획토론회』에서 유엔교육문화기구(유네스코)의 대표는 전반적 1년제의 무부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조선은 유네스코가 제기한 전민교육, 일생교육을 위한 2015년까지의 목표를 이미 오래전에 실현한 유일한 나라이며 그야말로 배울의 나라, 교육의 나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른바 수령님께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살려는 새 세기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덕윤리교육, 미학정서교육에 높은 관심을 두고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교육실태를 보아도 정체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교육을 폭넓고 깊이있게 할 때에 대한 우리당의 교육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우리는 깊이 느낄 수 있다.

교육의 특성과 그 실현방도에 있어서 전지구적범위에서 추구

한 열람봉사 및 과학리온강연, 과학기술강의, 새 기술통보강의, 오장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교육체계를 높이 밟고 현대문명국으로 자처하는 것은 세계교육발전에서 주요한 흐름으로 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끌어주자 아니라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세득한 혁명인재로 키우며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꿈허니 우리나라가 짚은 기간에 수백만의 지식인대부대를 가진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자랑스럽게 된 것은 우리 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수십년전에 제시된 우리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오늘은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한 뚜렷한 성과이다.

경우에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물려온 철학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의 교육체계에

대화와 협상의 실현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

북남고위급긴급접촉과 공동보도문의 발표로 일축족발의 위기는 가서지고 대화와 협상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북과 남은 힘들게 마련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돌려세운 현정세 흐름을 꿈고한 평화와 자주통일에로 적극 주동해 나가야 한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고위급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여러 방면에 걸쳐 대화와 협상을 실현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민족의 숙망인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진시키나 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상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뉴내미와 협력을 맺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최악의 파국으로부터 극적전환의 길에 들어선 현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그 어떤 난관과 장애도 한지막으로 잊혀있을 험의 뜨거운 통포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가로막을 수 없다.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거래의 자주통일지향을 실현하자면 대화와 협상의 길부터 열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의 실현은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서로의 이해와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대화의 힘을 열고 서로 만나 의견상이를 해소하며 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북남 생방이 허심한하게 마주앉아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때 북남관계가 협회와 협력, 통일의 방향으로 전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명한 사실이다.

대화와 협상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우리 민족은 그 누구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 대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다. 만일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참혹한 재난은 지난 조선전쟁 때는 대비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시적인 전쟁위험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북남대결이 격화되면서 일상의 불편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겪고자 하는 것을 원하지 못하는 대화, 통일과 일인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으며 세면을 세우기 위한 형식, 시간 탐비일뿐이다. 대화와 협상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온 우리 민족은 북남대결이 격화되면서 일상의 불편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겪고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쟁방이 불신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신뢰를 더지며 협연의 정을 두드려며 불신과 오해를 극복하며 뜻과 힘을 하나로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 북남대회와 협상의 목적이다. 북과 남은 편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대체하게 덤비리고 민족적리익을 앞세우는 자세와 입장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결코 생소한 길이 아니다. 경험과 전통도 있다. 북과 남은 이미 7. 4 공동성명과 6. 15 공동선언, 1. 0. 4 선언의 제재로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정력적인 노력의 빛나는 결실이다.

남조선에서 현 『청원』이 들어왔을 이후 반통일세력의 도전은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대화의 길을 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년간 긴장하는 대화로 자기 모습을 바꾸었으며 그로 인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풀수 없었던 사변적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역사는 북남당국이 진실로 화해와 단합을 위한 힘으로 풀려나간다면 북남관계개선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북남대화와 협상을 주제로 기록한 책이나 글에서는 북남관계 개선의 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시련과 난관은 있지만 장애물을 겪어내며 대화와 협상을 실현하는 것을 원한다.

협상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기 위해 성의있게 노력할 것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어지하는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화, 통일과 일인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으며 세면을 세우기 위한 형식, 시간 탐비일뿐이다. 대화와 협상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온 우리 민족은 북남대결이 격화되면서 일상의 불편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겪고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도 북

한 당국회담을 끝내기 위해 성의있게 노력할 것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의미가 없으며 세면을 세우기 위한 형식, 시간 탐비일뿐이다. 대화와 협상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온 우리 민족은 북남대결이 격화되면서 일상의 불편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겪고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도 북

북남관계전도를 흐려놓는 대결악습

침혹한 새 날을 빛어낼 뻔 하였던 전란의 위험한 불길이 마지막 순간에 다행스럽게 사그라들고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겨례의 기대가 높아지는 지금 식어가는 재무지를 한사코 뚜지며 대결의 불씨를 되살려보려고 발악하는 불순세력이 있다. 허위사실유포와 동족리간으로 악명 높고 아무때나 대결을 부르짖는 남조선의 보수阶层자들이 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언론들은 그 무슨 『북의 핵포기』나 『10월도발 가능성』이니 하는 제나름대로의 헛나방을 불어대며 우리를 마구 겁고고 있다.

여기에는 그들이 저지른 행동 하나를 해도 북

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북남합의의 정신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때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실을 보도록 하여 대결과 전쟁과 적대심을 드러내는 반공국대결소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p